

자차석 박사의 불교공부기도



불자는 법에서 태어난다

<법역잡아환경>제12·638경에는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나는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최후의 몸 을 받았으며, 위없는 훌륭한 의사로써 득의 화살 을 쏘아버렸노라. 이제 그대들은 모두 나의 아들 이다. 그대들은 모두 나의 마음과 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법으로 화생했으므로 그대들 은 바로 내 법의 아들이다”란 구절이 있다. 부처님 께서 왕사성의 죽림정사에서 오백명의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하신 설법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유신론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내 용이지만 이 가르침의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사 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당시 인도사 회를 구성하고 있던 4성계급 제도에 대한 전면 적인 부정이다. 4성계급이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를 말하며, 이들은 신분에 따 라 태어나는 방법도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브라만은 법전의 입으로, 크샤트리아는 오른쪽 옆구리로, 바이사는 우리들이 태어났듯이, 수드 라는 엄지발톱 사이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중 에서 법전의 입으로 태어나는 브라만이 가장 존 귀한 존재로 대우받았다. 부처님은 선천적인 인간의 차별에는 동의할

인종·종교·성별에 따른 차별 부정

불성 의미 극대화·평등원리 등장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가 어떠 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반귀천이 갈라진다고 본다.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들고 자신이 책임지 는 철저한 인과율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계급제도란 사회적 필요이 며, 계급 모순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그것의 교정을 위해 노 려한다. 인종, 종교, 성별, 지역에 따라 인간을 차 별화선 안 되는 것이라 본다.

대승불교의 전개는 초기불교의 이상과 같은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구 현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불성을 발견하게 된다. 부처님의 성 품을 의미하는 불성(佛性)은 인간의 가치를 극대 화시키고 동시에 평등의 원리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대승불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 려 중에서 초기불교의 정신을 계승해야 수용하 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다. 금근도 각 종단 대 표자들의 신년 법어 중에도 “부처님의 입에서 태 어나며, 부처님의 옷으로 덮여준다”(從佛口生 佛 衣覆) 내용이 있다. 이것은 <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사상을 재현한 것이다. 한편으로 <법 화경>의 비유품과 법사품에 나오는 구절을 응용 한 것이기도 하다. 비유품에는 “오불 비로소 이 부처님의 아들들은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났으 며, 법에서 변화하여 태어났으며, 부처님의 법의 유산을 얻었음을 알았습니다”하는 구절이 있다. 법사품에서 예래의 옷을 탐욕과 성내는 마음을 떨쳐버린 화평한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의 문구에 대해 천태종을 창시한 천태지 의 스님(대정장34, 64주)은 세 가지 기쁨과 세 가 지 성취로 이해한다. 신구의 3업이 청정한 상태 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규기 스님(상 통, 736주)은 <법화원찬>에서 부처님의 아들일 을 안다는 것은 바로 도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풀 이하고,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성스 러운 자제를 얻는다는 의미로 본다. 부처님의 법 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법신의 길을 따라서 상사 법을 성립하는 것이며, 법신의 길이란 제 보살을 이 지고 있다고 있는 부덕과 지혜이고, 법의 유산을 얻 는다는 것은 번뇌가 없는 법의 재물과 보배 그리 고 상사법을 수용하는 것이라 본다.

길장 스님(상통, 514상)은 <법화소>에서 < 대지도론>을 인용하여 “바라문은 법전의 입에 서 태어나므로 4성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밝

히고 있는데 이제 종족에 따라서 부처님의 입으 로 태어난다고 찬탄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정한 법전이므로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일임을 나타낸다. 법으로 화생 한다는 것 역시 비유와 찬탄을 빌려온 것이며, 부 처님의 법의 유산을 얻는다는 것 역시 간단한 찬 탄”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천태 스님은 매우 종교적인 해석을 보이고 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일체의 행위와 역사를 엮어간다는 점에서 이들을 정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은 저절로 정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런 뜻에서 세 가지 성취로 해석을 하고 있다. 반 면 규기 스님은 철학적이면서도 중국적이다. 스 님 자신이 유식불교학의 대가인 만큼 <법화경> 을 지혜의 체득으로 해석을 하는 한편, 중국인 특 유의 절대 가치인 도의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 지 않고 있다. 이상의 두 스님에 비하면 길장 스 님은 전환과 인도적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고 자 한다. 그러나 종국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해석 에서는 사회통합과 계급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생생한 교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은 애석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 삼엄내설위헌·불교학 박사>

법 석

“원앙새 수 놓은 것은 보여주거나(鴛鴦繡出從教看) 수 놓은 금침은 남에게 건네 줄 수가 없느니라(不把金針渡與人).”

어러분에게 ‘참나’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깨달을 그 자체는 어러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천년 전에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불교를 펴기 이전부터,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참나’는 존재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무언지도 모르고 참선 이 무언지도 모르면서도 어려서부터, 대관절 이 인 생이란 게 무어냐? ‘나’라 하는 것이 무엇이나? 어 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 한 평생을 회로애락의 많은 고비 고비를 겪으면서 마침내 일생을 하직하고 어느 곳으로 또 가느냐?

이 문제의 해결은 말로써 가르쳐 줄 수 없고, 들어 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선법’을 통해서 ‘깨달아라!’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양에까지 널리 보급 되고 불이 일어나서 너도나도 참선을 하려고 하고 또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선을 하려면 활구참선을 해야 합니다.

활구참선을 하려면 그 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불교에 관한 것이건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 사의 말씀까지도, 전부 다 놓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 고 자못 바보가 되어서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해 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활구참선법이란 어떠한 것이냐? 이론으로 따 저서 알아 들어가는 ‘죽은 참선(死句參禪)’이 아니 라, 일체 이론을 배제하고 오직 꼭 막힌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하나의 화두를 참구하여 일체 공안을 타파 하고 확철대오하는 참선법입니다.

첫째 자제를 바르게 하고 둘째 호흡을 바르게 한 다음 셋째는 화두를 의심해 나가는데, 화두는 깨달음에

이르는 관문이고, 관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화두의 생명은 의심입니다.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을 관조해 나가는 것, 알 수 없는 그리고 꼭 막힌 의 심으로 그 화두를 관조해 나가으로써 모든 번뇌와 망상과 사량심이 거기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그 의심을 관조해 나가므로 해서 더 이상 그 의 심이 간절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의심이 커질 수 없

고, 더 이상 깊을 수 없는 간절 한 의심으로 내 가슴속이 가득 차고 온 세계가 가득 차는 경지 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화두를 의식적으로 들지 않아도 저절 로 들려져 있게 됩니다. 밥을 먹 을 때도 그 화두가 들려지고, 풍 을 놀 때도 그 화두가 들려져 있 고, 차를 탈 때도 그 화두가 들 러져 있고, 이렇게 들려고 안 해 도 저절로 들려진 단계, 심지어는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그 화 두가 들려져 있게끔 됩니다.

이런 상태로 6~7일이 지나면 어떠한 참나에 확철대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향아리예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 향아 리를 큰 돌로 내려치면 그 향아 리가 딱 깨지면서 물이 터져 나 오듯이 그렇게 화두가 타파되 고, ‘참나’를 깨닫게 되고, 불교 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중에 끌고 다니는 이름 이 무엇이고? 이렇고? 이것도 무엇이고?” 하는 말을 경상도 사 투리로는 ‘이렇고?’ 라고 합니다. 참선 해나가는 데에는 ‘이렇고?’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렇고…?” 알 수 없는 생각뿐이여야 합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이렇고?’ 또 돌아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슬픈 생각이 나도 바로 ‘이렇고?’, 기쁜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바로 ‘이렇고?’, 괴 로운 생각이 나도 그 괴로운 생각 이 다음 두 번째 생각으로 번져나 기 이천에 바로 ‘이렇고?’ 로 돌아와 버리지요. 도인이라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 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일어나 는 생각을 발판으로 해 바로 ‘참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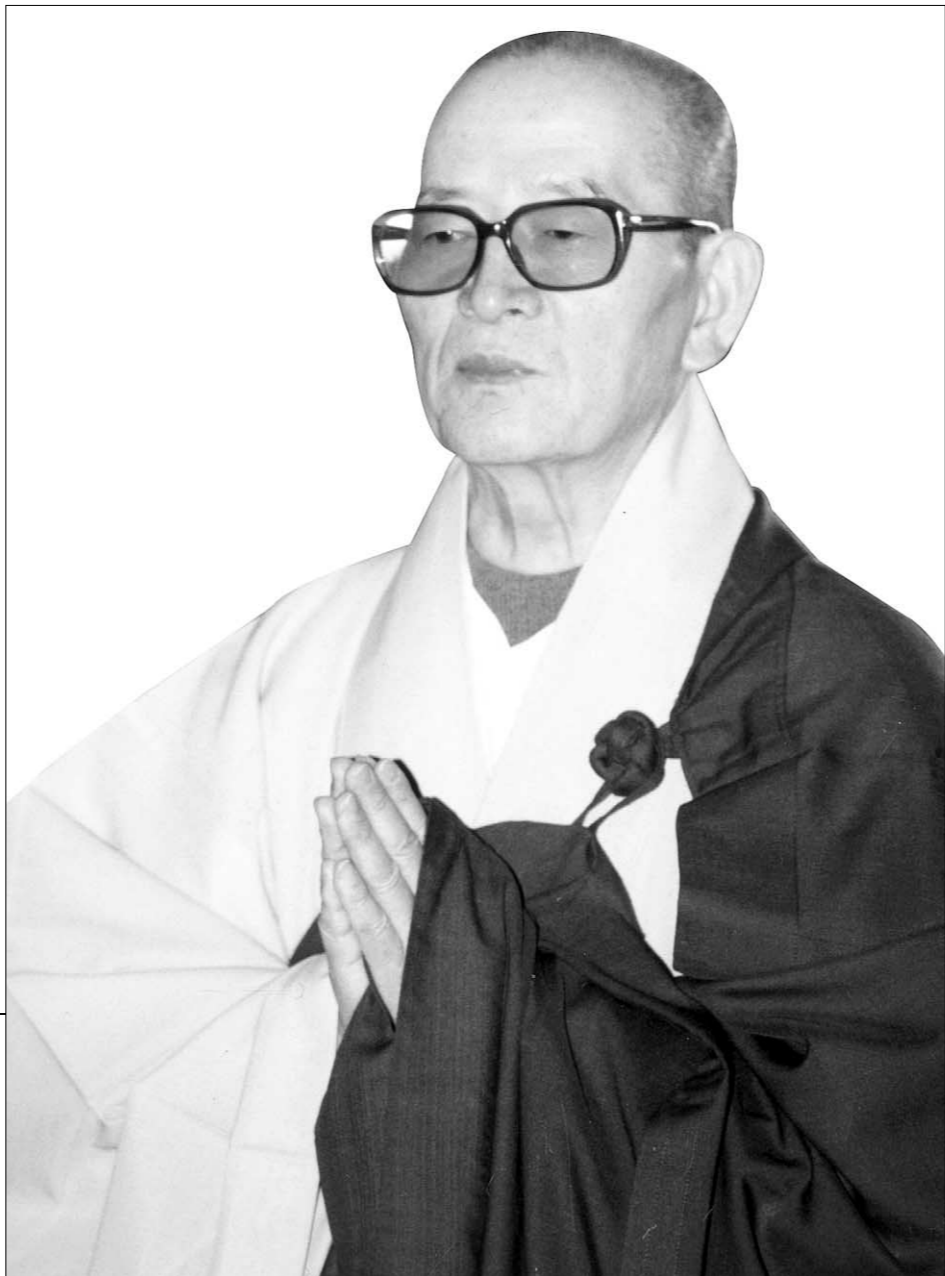
공안은 이 우주세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문헌에 오름, 과거 에 고인들이 사용한 화두가 1700 가지인데, 이 ‘이렇고?’ 화두 하 나만을 열심히 해 나가면 이 한

이론 떠난 참구시 확철대오



송담 스님

(옹화사 법보선원장)



무엇이고?” 하는 말을 경상도 사 투리로는 ‘이렇고?’ 라고 합니다. 참선 해나가는 데에는 ‘이렇고?’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렇고…?” 알 수 없는 생각뿐이여야 합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이렇고?’ 또 돌아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슬픈 생각이 나도 바로 ‘이렇고?’, 기쁜 나쁜 생각 이 일어나도 바로 ‘이렇고?’, 괴 로운 생각이 나도 그 괴로운 생각 이 다음 두 번째 생각으로 번져나 기 이천에 바로 ‘이렇고?’ 로 돌아와 버리지요. 도인이라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 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일어나 는 생각을 발판으로 해 바로 ‘참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안은 이 우주세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문헌에 오름, 과거 에 고인들이 사용한 화두가 1700 가지인데, 이 ‘이렇고?’ 화두 하 나만을 열심히 해 나가면 이 한

문제 해결함으로써 1700공안이 일시에 타파됩니다. 화두가 많다고 해서, 이 화두 조금해 보고, 안되면 또 저 화두 좀 해 보고, 이래서는 못 쓰는 것입니다. 화 두 자체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화두 철저히 해 나가면 일체 공안을 일시에 타파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일본식 참선이 수입이 되어 화두 하나를 이 리저리 따져서 “아, 이런 것 이다”, 또 그 다음에 다른 화 두를 이리저리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를 해결 지 어 놓고 또 다른 화두를 하고

해서, 10개 20개… 화두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져 들

꿈속까지 화두 들때 의심 터져



○4월 인천 옹화사 법보선원에서 불행된 전강 대선사 28주기 추모법회를 마친후 안성 석남사 주지 정무스님(왼쪽)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송담스님.

어가며 참선을 하는 지성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론 참선은 ‘사구참선(死句參禪)’이라, 1700공안 을 날같이 그런 식으로 따져 서 그럴싸한 해답을 얻어왔 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 전을 하는 것이지요. 이 법 이 바로 불법(佛敎)이요, 최 상승법(最上乘法)입니다. 평만대장경에 그렇게 많은 법문이 있지만 이 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세(末世)다. 중생의 근기(根機)가 미약하다. 그 러니까 참선법 가지고는 안되고 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근기가 아니라 상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하근기 가 아닐까’ 하는 염려를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정 을 묵묵히 관조하다가 조용하게 내칠 때 다시, 또, “이…렇고…?”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칠 때, “이…렇고…?” 다 내쉬면 스스로 숨을 들이마시 되, 들이마시면서도 아까 그 ‘이렇고’ 한 그 의심의 그 여운이 그때까지 오도록 그렇게 조용하게 관조를 하는 것입니다. 3초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그 의심 을 묵묵히 관조하다가 조용하게 내칠 때 다시, 또, “이…렇고…?”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칠 때, “이…렇고…?”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단 생각은 줄어들고 ‘이렇고?’ 가 잘 되어지면, 두 번 들 이마셨다 내칠 때 한 번씩만 ‘이렇고?’를 듣다가, 나

중에 더 익숙해지면 다섯번 호흡하는 동안 ‘이렇 고?’ 한번의 의심으로 쪽 이어서도 됩니다.

그랬어 나중에 공부가 더욱 익숙해지면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이…렇고…?” 한 번 해놓으면 하루 종 일 그 ‘이렇고?’ 한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될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깨달을래야 안 깨달 을 도리가 없지요. 일상 생활이 바로 알 수 없는 화두 하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화두를 들고서 밥 먹고, 풍도 누고, 차도 타고, 길기도 하고, 사랑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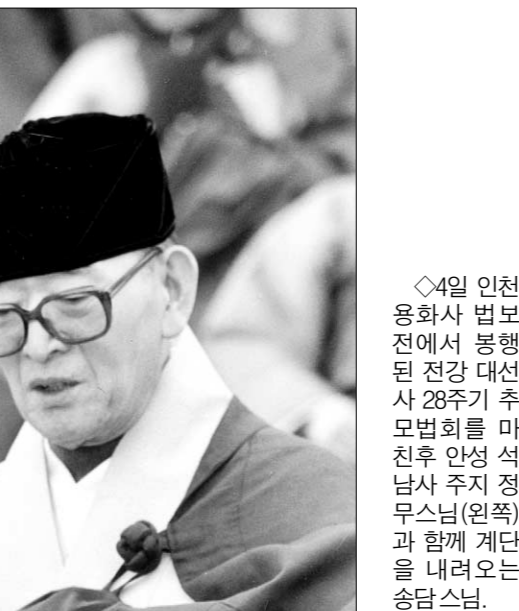
그 사람에게는 8만4천 마구기가 옛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8만4천 마구기가 무엇이나 하면 바로 무수 한 번뇌 망상인데, 화두가 독로(獨露)한 사람한테는 와서 들어볼지를 못합니다. 잠깐 잠깐 필요 있는 생 각이 떠오르면 그 필요한 일을 적절히 처리하되, 나 의 이 화두 일념은 근본적 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렇고’ 간절한 의심으로

하나의 화두 참구하면

1700공안 모두 타파하는 것

꿈속까지 화두 들때 의심 터져



○4월 인천 옹화사 법보선원에서 불행된 전강 대선사 28주기 추모법회를 마친후 안성 석남사 주지 정무스님(왼쪽)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송담스님.

가 나를 깨닫는 길이요, 우주법계의 주인공이 되어 서 우주법계를 내가 요리해 나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입니다. 내가 운전을 당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 전을 하는 것이지요. 이 법 이 바로 불법(佛敎)이요, 최 상승법(最上乘法)입니다. 평만대장경에 그렇게 많은 법문이 있지만 이 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세(末世)다. 중생의 근기(根機)가 미약하다. 그 러니까 참선법 가지고는 안되고 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근기가 아니라 상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하근기 가 아닐까’ 하는 염려를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정 을 묵묵히 관조하다가 조용하게 내칠 때 다시, 또, “이…렇고…?”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칠 때, “이…렇고…?” 다 내쉬면 스스로 숨을 들이마시 되, 들이마시면서도 아까 그 ‘이렇고’ 한 그 의심의 그 여운이 그때까지 오도록 그렇게 조용하게 관조를 하는 것입니다. 3초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그 의심 을 묵묵히 관조하다가 조용하게 내칠 때 다시, 또, “이…렇고…?”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칠 때, “이…렇고…?”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단 생각은 줄어들고 ‘이렇고?’ 가 잘 되어지면, 두 번 들 이마셨다 내칠 때 한 번씩만 ‘이렇고?’를 듣다가, 나

글=김재경 기자 사진=백재현 기자



남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영각스님 (下)

영각스님은 배울 점이 많은 스님이다.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열심히 정진한다. 평소에도 늘 정진하 다가 잠이 들고 먼저 일어나 정진하곤 했다. 토굴 에서는 물론이고 여행을 함께 하면 그곳에서도 인 제나 그랬다. 그리고 스님은 그렇게 밤새 때가 묻 은 선방 수좌이긴 하지만 우리 포교당에 오면 절의 일도 골똥 도와준다. 어떤 스님들은 산책에는 편안 한 휴식을 위해 도반스님 절을 찾았다고 하지만, 영각스님은 우리 절 일을 마치 자기 절 일처럼, 은 사스님 곁에서 시봉하듯 한다. 내가 새벽 예불을 위해 일어나면 벌써 법당에서 준비를 마치고 앉아 있고, 행사 때가 되면 서슴없이 바리차 역할을 마 다하지 않는다. 가끔 법문이라도 청하면 그건 주지 스님 몫이라며 묵묵부덕 집는다.

한편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예전에 절 옆에 대승 천리교에서 운영하는 교당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 람들이 미륵부처님 이야기를 하며 불교를 사칭해 서 집집마다 돈을 걷고 다다. 정혜사에서 나왔다 며 우리 절 이름을 팔고 다닌단다. 이 이야기를 같

은 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합부로 하는 경향이 있 다. 여기에 이관(譯)이나 사편(譯)이나 하면서 제법 아는 척도 한다. 그러나 그렇기 않다. 원래 이관이란 의미에는 참 선, 경전공부, 포교 등의 불교 교리 전반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사편은 절의 산림(山林)을 말하며 이는 분들을 지칭하던 말인데, ‘살림살이 를 잘한다’고 할 때 ‘살림’은 바로 이 ‘산림’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스님들과 포교하 는 스님들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구별은 조선시대에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내세우며 스님을 천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말이다. 이관이란 되었건 사편이 되었건 그 시대에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의 자신이 피르르 끊어지라는 의 미로 쓰였던 것인데, 그런 분별을 천박하게 지금 이 시대에 적용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불자다운 사상이 아니다. 예전의 스님들은 이관과 사편을 겹쳤다. 아 니 그런 구별조차 없었다고 해야 맞는다. 출가 수 행(修行)도 정하고 하고 싶은 공부, 해야 할 일들을 한다. 그래서 이관과 사편은 둘이 아니다. 무엇을 하건 수행자답고 불교인답으면 되는 것이다. 오히



그림·문병성

해제·결제 가리지않고 정진

포교당일 출선...힘들때마다 격려

러 바른 이치를 터득하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이관사편’으로 담뱃바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영각스님은 어느 곳에서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일 뿐이다. 여기 에 이관과 사편의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스님과 나는 만년면 공부의 진척(進捗)을 묻기도 하고 세상 일을 함께 이야기하며 많은 교감을 나누 는다. 그때마다 스님은 항상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미안해 한다. 덕분에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다사서…

그런데 나는 스님에게 항상 미안하다. 한 철 정 진이 끝나고 우리 절에 오시면 좀 편히 쉬고 가면 좋으려만 대개는 일만 하다가 가는 스님을 생각하 니 그렇다. 그리고 스님이 결제에 들어가 정진할 때에도 그 흔한 대중공양(大衆供養) 한번도 반반하 낸 적이 없으니 또 그렇다. 절 현관이 나아지면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은 돈 벌고 나쁜 줄은 일 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 는 것 같아 부끄럽게 느껴질 뿐이다.

요사이 영각스님은 해제 절에도 보기 어렵다. 결 제와 해제를 가리지 않고 공부에 정진하고 있기에 미안하다.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가끔 씩 보여주는 그 순수함과 천진함, 공부에의 열정을 지닌 스님의 모습이 그러워진다.

■서를 정혜사 주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4월 오전 인천 옹화사 법보전에서는 6백여 사부 대중에 참석한 가운데 전강(1898-1974) 대선사 28주기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자리를 가득 메운 불자들은 ‘북대(北臺), 남(南) 진제(眞濟) 부산(富山) 해운(海運) 정사(正舍) 진제(眞濟) 스님’의 한 죽인공인 송담 스님(옹화사 법보선원장)을 바라보며 스님과 같은 선지식이 될 것을 발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74세의 고령에도 한사조 자신에 대한 조실 추대 를 거절한 채 여전히 열반한 스승을 조실로 모시 고 있는 송담 스님은 산문 출입을 자제해 ‘지극한 결순함’ 또는 ‘은둔주의’라는 여러 추측과 함께 ‘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이란 점에서 ‘제2의 성 철 스님’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신화가 되어가고 있는 송담 스님의 ‘산문불출(山 門不出)’ 까닭은 무엇일까. 송담 스님을 가까이서 본 스님과 신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추정된다.

첫째는 법가량 담지 않은 문답을 하고선 자신이

셋째, 신론 또는 출판으로 법문이 활자화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격외(格外)의 도리가 잘못 전해 질 것을 우려하는 철저한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가도 받지 않고, 스스로 깨달 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한 사제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송담 스님은 이런 일을 수없이 겪고서 학인들의 천견을 엄격히 선별해 온 것으로 알

려졌다.

둘째는 전법제자 양성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 는 송담 스님이 학인들의 분심(憤心)을 불러일으 키고자 고도의 ‘후학 제압법’을 베풀고 있다는 설 명이다. 천견을 하지 못한 수좌들이 ‘나도 송담 스 님과 같은 깨달은 선지식이 되고야 말리라!’는 분 한 마음을 내게 해 옹정정진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다.

셋째, 신론 또는 출판으로 법문이 활자화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격외(格外)의 도리가 잘못 전해 질 것을 우려하는 철저한 ‘불립문자(不立文字의

화선원에 11명의 수좌가 방 부를 들었고 시인선원에는 연중 200여 재가자가 정진하 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도 심 참선도량으로 자리잡은 것만 봐도 그러하다.

1929년 12월 출생(俗명 朴鑰參)한 송담 스님은 45년 전강 스님을 은사로 득도, 사미계(別號 松濤, 법명 正鵬)를 수지했다. 51년 나주 다보사에서 전 강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75년 전 강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전법계를 받았다. ‘10 년 번어리로 오도하지 못하면 다시 10년간 눈까지 감아버리려고 했다’는 치열한 구도의 열정과 스승 의 정성스런 지도에 힘입어 출현해 생사의 대의를 깨쳐,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고 한다.

황매산(黃梅山) 뜰에는 불이 내렸는데/ 차운(車) 기러기는 저 장천을 울며 북을 향하여 날아가 는구나/ 무슨 일로 십년간 헛되이 힘을 낭비하였 는고/ 달 아래 삼진대강이 흐르는구나.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

송담스님의 산문불출 까닭은?